

이은솔

- 동문
- 서울 의과대학 의예과 03
- 메디블록(Medibloc) 대표

□

목차

- [1 의사 가운 벗고 '메디블록' 창업](#)
- [2 언론소개](#)
- [3 뉴스H](#)
- [4 각주](#)

의사 가운 벗고 '메디블록' 창업

서울과학고를 졸업하고 영상 의학 전문의로 인턴, 레지던트 수료 후 올해 초 공중보건의 생활을 마친 이은솔 동문(의학과 03). 소위 잘 나가는 '엄친아'로서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그가 난데없이 2017년 4월 한 의료계 스타트업의 대표가 됐다.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의료계에 접목해, '병원' 중심의 폐쇄적인 의료 정보 시스템을 '환자' 중심의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불안정한 면이 많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1차 병원에서 받았던 검사를 2,3차 병원에서 다시 받기도 하고, 자신이 지금껏 어떤 진료를 받아왔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부지기수고요."

이 동문의 말처럼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상당 부분 '병원'중심으로 구성돼있다. 환자의 진료 기록은 각기 다른 병원에 분산돼있고, 전문의와의 짧은 진료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병력()을 전달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그렇기에 이 동문은 '메디블록(Medibloc, 클릭 시 홈페이지로 이동)'을 통해 탈 중앙화된 의료 정보 시스템과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의료 서비스 및 기기로부터 생성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저장하고 관리해요. 즉 세계 어디서든 통합된 의료 정보를 활용해 일대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죠. 그리고 저희 '메디블록'을 이용하는 참여자들은 '메디토큰(Medi Token: MED)'이라는 가상 화폐를 통해 서로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언론소개

- [의사 가운 벗고 마이너스 창업 선택한 '외골수' 이은솔 씨](#) (2017.11.17. 캠퍼스잡앤조이)
- ["블록체인으로 개인이 의료정보 직접 관리하자"](#) (2017.11.28. 블로터)

뉴스H

- [\[도전#해시태그\] 의학과 기술이 만났을 때 #블록체인 #개인이 관리하는 의료 데이터](#) (2018.10.23.)
- [의료 정보 플랫폼의 새 판을 짜다](#) (2017.12.4.)

각주